

#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시설 관리개선 방안 사례연구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이상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 국문 요약

창업지원시설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과 공간,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영, 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시설을 관련 법령에 따라 꾸준히 개설중이며, A시도 또한 2005년부터 관련 시설을 개설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A시의 창업지원시설의 문제점을 구조적 문제와 관리상의 문제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구조적 문제로는 시설의 기능 중복 등이 부족하였으며 관리상 문제로는 외부 민간의 투자 연계와 담당 매니저들의 전문성 등이 한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A시 창업지원시설의 구조적인 재구조화와 관리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협력네트워크, 비영리단체, 지역생태계

## I. 서론

본 연구는 A시의 창업지원시설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상 문제에 대하여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사례연구이다. A시에는 2019년 1월 기준 44개의 창업지원시설을, 창업보육, 창업정보교류, 시제품제작 세 가지 갈래로 나누어 운영 중이며 2012년부터 A시는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창업을 장려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는 창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일 뿐 아니라 여성의 경력연장과 A시 내에 있는 도시형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 중에 있다. 그러나 A시의 창업지원 시설은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기능적인 배분을 고려치 않고 개설하여, 시설 기능에 대한 중복문제와 관리 면에서 창업지원시설을 관리하는 A시 산업진흥원의 전문성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또한 민간과의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본 사례연구에서는 A시의 창업지원시설을 목적에 맞게 재분류하고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였으며 또한 앞으로의 A시 창업생태계 발전을 위하여 시설에 새로운 기능을 제안하였다. 창업생태계 발전을 위하여 시설에 새

로운 기능을 제안하였다.

## II. 창업지원센터 배경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 7항에서 창업지원시설(Business Incubator)을 다음과 같이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창업자에게 시설 및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정의한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 대학 등에서 예비창업자들과 기창업자들의 창업과 성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에 대해 창업지원센터는 크게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재무적 자원 세 부분을 지원하게 된다(노승한 외, 2017). 지원 자원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간접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조달하여 지원하기도 한다<sup>1)</sup>. 창업보육센터의 기대효과는 일반적인 경제적 효과와 벤처기업 활성화 효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효과로는 창업의 활성화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파급 효과로서 미시적으로는 기업의 생존율 및 성장률 제고에

\* 주저자,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byoo@snu.ac.kr

\*\* 참여저자,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amumu1123@snu.ac.kr

1) 노승한, 장수진, 김진영, 김도년, “창업자들의 창업공간 구성과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p.16

서부터 거시적으로는 고용의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등을 들 수 있으며 벤처기업활성화 효과로는 창업보육센터가 벤처기업의 특성인 모험성의 위험을 완화하고 혁신성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벤처기업의 육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양현봉, 2007).<sup>2)</sup>

### III.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시설

#### 3.1. 창업지원시설 현황

A시는 2005년 4개의 창업관련 센터를 개소하고 2010년까지 12개로 확대하였다. 이는 1990년대 세계적인 창업 붐에 힘입어 1995년 전국 최초로 시 내에 공공부문에서 낫설었던 창업지원시설을 최초로 개소하였다. 2015년에는 20개의 지원시설로 확대하였으며 2016년까지 진행된 창업지원 사업으로 매년 A시는 1,000개 기업을 보육하고 7년간 6천여개의 창업기업을 배출한 바 있다. A시 창업지원시설은 현재 창업지원시설을 창업보육시설/창업정보교류시설/시제품제작시설 3가지로 나누어 운영중이고, 각 종류별로 기능과 대상이 다르다. 이는 중소 벤처기업부가 창업보육시설/시제품제작소로 구분하여 운영중인 것과 다른점이다. A시의 창업보육시설이 그러나 A시의 창업지원시설 총 연면적 중 96.41%(195,416.17㎡) 로 다른 종류의 시설보다 창업보육시설을 주로 하여 운영중에 있다. A시의 창업보육시설은 벤처기업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외부 민간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리스트들과의 외부 네트워킹 행사등을 진행하는 것이 주 기능이다. 창업정보교류시설은 창업정보 제공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공간이며 시제품제작시설은 창업아이디어 시험을 위한 공간으로 장비제공과 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이 주 기능이다.

A시에는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창업지원시설 44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44개소 중 창업보육시설이 27개, 창업정보교류시설이 10개, 시제품제작시설이 7개이다. 이 중 A시의 창업보육시설에서 2017년도 기준 총 2조 8,868억원의 매출 누적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 보육기업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 350백만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동일년도 기준 보육기업의 누적투자유치액이 1,428억원, 지식재산권 획득건수도 누계로 3,959건, 고용실적도 총 14,071명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A시는 창업보육시설을 연면적에 따라 1군(1만㎡ 이상)부터 2군(1만㎡미나~3천㎡이상), 3군(5천㎡미만~2천㎡이상), 4

군(2천㎡미만~1천㎡이상), 5군(1천㎡미만)으로 다섯 군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1군의 대형시설이 전체 A시 창업보육시설 연면적 중 66.41%를 차지하고 있으며, 2~4군 시설의 고용인원과 보육실 수준이 대부분 비슷하나 5군의 경우는 여성 직업능력 개발과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여성발전센터와 A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창업지원으로 그 기능이 조금 다른 것이 A시 창업보육시설의 특징이다. 이들 보육시설의 경우 총 보육실수가 1,043개이며 개개의 시설은 평균적으로 37개실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 보육시설의 보육실 사용율은 평균적으로 94.15% 수준이다.

A시의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은 2018년 3월 기준으로 총 783개이다. A시의 입주기업 분류의 특징 중 하나로 A시 자체적인 분류 기준을 만들어 사용중이라는 점인데, 대·중·소 분류로 3단계 분류를 취했으며 대분류 내에는 A시형 지식서비스/ A시형 미래성장동력/소설벤처로, 중분류는 제조, 제조/ICT, 서비스, 서비스/ICT로 나누고 소분류는 제품제작업/콘텐츠제작업/서비스공급업/서비스플랫폼 4가지로 나누어 각 분류 단계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 3.2. 창업지원시설 문제점

A시의 창업지원시설은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시설 기능이 중복되고 시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한 가지 문제점이다. 중복성 문제의 경우, 시설들이 시차를 두고 각각 설립되어, 각 시점, 지역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을 우선하여 설립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체 44개 시설들의 기능들이 중복적이고, 전체적으로 구조가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전문적 창업 교육 및 시설 관리 미흡’이라는 점을 들 수가 있다. A시 산업진흥원의 전반적 관리와 일부 비즈니스인큐베이터들의 지원이 있지만, 잦은 A시 산업진흥원 직원들의 순환보직과 자체적인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원 기업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기업 성장과 같은 상위단계로 발전하는 성과 달성의 어려움 존재한다.

세번째 문제점으로는 ‘외부 투자 연결성 부족’이다. A시의 기업 투자자금 지원 재원이 부족하고, 투자 기능이 기본적으로 미흡하여 교육과 함께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부분에서 기업이 투자 성공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 문제점으로는 일부 시설들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8 제1항: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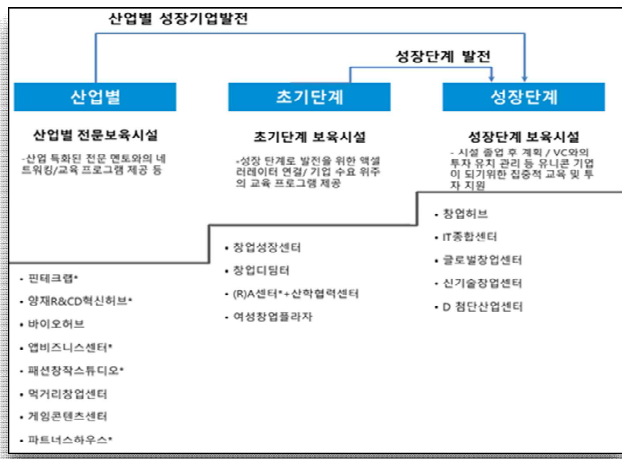
2) 양현봉 2007,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산업연구원, p.28.

건에 규모면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A시에 총 4개소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총 4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IV.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시설 개선방안

3장 2절에서 제시된 A시의 창업지원시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시의 창업지원시설 개선방안은 전반적으로 시설의 기능을 재구조화하여 개별 시설 보다는 A시 창업 생태계의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데 그 주안을 두었으며 특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의8 제1항)’ 과 같은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들에 대한 해결방안등을 제시하였다. 본 개선방안에서는 특히 A시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지 않던 4050세대의 창업과 창업 후 폐업에 관한 지원 2가지를 새로이 제안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 4.1. 단계별 시설 재분류



<그림 1> 단계별 시설 재분류

창업보육시설들을 생계형 창업과 혁신형 창업 목적으로 구분하고, 다시 혁신형 창업 목적을 창업 준비 및 기초 단계와 성장 단계로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기업을 배치시킨다. 또한, 산업별 목적에 맞게 일부 시설은 전부 특정산업에 특화하는 것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성장단계로 1) 기업 성장단계 목적 시설로 제안하며 이 시설의 목적은 엘리트 기업, 혁신 창업 중심 지원으로 하였다. 그 다음의

초기 단계로는 2) 기업 초기단계 목적 시설로 제안하며 이들의 경우, 창업 준비 단계 예비 혁신형 기업, 초기 혁신형 기업들을 발굴 및 지원하고, 성장단계로 발전시 상위 성장단계 목적 시설로 연계해주는 에스컬레이터형 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 하였다. 3) 산업별 지원 목적 시설은 산업별 클러스터링으로 기업 간 협력 및 인력 교류 가능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미달되는 시설에 관해서는 생계형 창업 목적 시설은 목적 분류 개선을 통한 집중 육성으로 하였는데, 이는 생계형 창업시설 목적과 혁신형 창업시설 목적이 절대 한 시설 안에 공존하는 것은 창업 분위기 조성을 저해함으로, 목적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생계형 창업의 경우 초기 필요자본과 창업 후 창업자가 자리를 잡는데 필요로 하는 교육의 내용과 시설에서 제공해야하는 서비스 등이 확연하게 혁신형 창업과 다르며, 이들의 경우 기업이 정신, 창업 네트워킹 행사 등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해야하는 창업보육시설의 설립 방향과는 상이하기 때문이다.

##### 4.2. 민간협력 강화

A시의 창업지원시설에는 전략적으로 민간협력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해결방안으로 민간기관 아웃소싱을 제안했다. 이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A시 산업진흥원의 운영 한계를 인지하고, 건물관리를 맡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업체, 창업교육을 담당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에게 운용 기능을 위양하고, A시 산업진흥원은 매칭 및 운영기업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성과를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은 IBK기업은행의 창공 사례와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제안했다.

IBK 창공 사례의 경우 창업지원시설의 창업교육 운용을 액셀러레이터에 전격 위양함. 한국거래소가 공간을 제공하고 IBK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창업공간 부산에 운영 중이다. IBK는 2017년에 마포에 IBK창공센터를 개소하고 혁신기업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해당 공간에서 사무공간 제공, 투자 및 용자와 창업교육(판로개척/마케팅/ 컨설팅 등)을 시행중으로, IBK 창공센터 마포에서만 23억원의 투자유치가 개소 후 만 1년이 안되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이승섭 팀장은 “기업별 평균 2.7회의 맞춤형 컨설팅, 2회의 외부전문가 멘토링, 1.3회의 VC라운드테이블 및 9개 기업 중국 IR 진행 등 다양한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의 경우, 중국은 벤처 캐피탈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

3)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84> . 대한금융신문. [인터뷰]“IBK창공, 혁신창업기업에 날개 달아줄 것” .2018.08.31

자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 투자액의 70%에 대해 세금공제<sup>4)</sup>를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SCORE Association, SBDC 등 은퇴한 기업가가 참여하는 멘토링 / 산학협력 기관과 미국 중소기업청이 지원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한 바 있음. A시도 민간기관과의 더욱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시 자체적으로도 벤처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통해 민간기관의 벤처 생태계 참여를 독려하도록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림 2> IBK 창공프로젝트 사례

두 번째로, A시 산업진흥원의 전문 인재 채용 확대를 할 것을 제안했다. A시 산업진흥원의 관리 인력 확보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창업카페 등 시설에 채용되는 총괄매니저 인력을 확충하여 운영시설에 배치함으로써 운영 인력 지원과 함께 민간 기관의 관리 모니터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아울러 3) 벤처캐피탈 업계와 협력 강화를 위하여 신규 벤처투자가 2018년도 3조 4천억대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7년도에 비해 43% 이상 증가한바 있으며 중기부에서 '벤처투자촉진법'을 금년도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NH 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가 VC 업계에 스타트업 기업투자설명회(IR) 개최에 후원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sup>5)</sup>에서 A시 내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관을 위한 IR을 개최하여 VC업계가 자연스럽게 A시 시설의 입주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4.3. 투자 연계 강화

A시의 창업 생태계발전을 위하여 외부 투자 연계를 강화해야 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1) 중견기업 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A시의

장점인 시설 지원과 중견기업들의 투자자금 지원능력을 결합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견기업들과 공간 지원 여력이 없는 대기업 관계회사 (예: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등)와 액셀러레이터의 컨소시엄 형태의 창업 프로그램 운영사를 모집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이며, 파일럿 테스트로서 A 시내 1~2개 시설에서 시범사업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대기업을 제외한 이유는 5대 대기업들의 경우 시설공간과 자금이 모두 확보되어 A시와 협력할 유인이 적고 또한,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평가/승진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기보다 위험 요인'<sup>6)</sup>이며 또한 '대기업의 투자가 스타트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인수하여 뺏으려 한다.'는 이미지로 인해 투자의 어려움에 대해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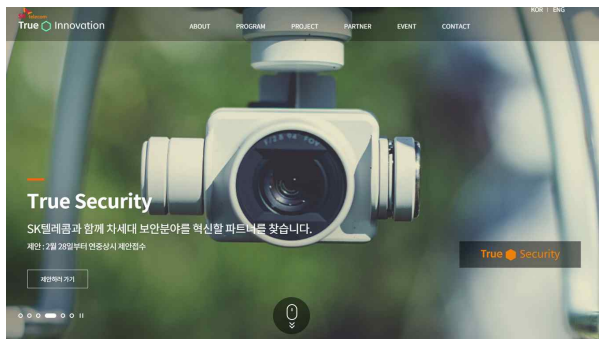
아울러 최근 '호반그룹'도 '플랜에이치벤처스' 로 사명을 걸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법인 설립을 추진 중<sup>7)</sup>이며 아직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기업들이 있으나 공간지원까지의 여력이 되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중견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민간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하여 2) 액셀러레이터에 의한 우수기업 유치방안도 제안하였는데, 이는 민간협력 강화를 통해 운용에 참여하는 액셀러레이터가 우수 창업기업을 A시 창업시설을 이용하도록 유인하게 됨으로써 우수기업들이 확보되면, 그만큼 벤처캐피탈, 지원기업 투자 성과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향후 한국엑셀러레이터 협회 등과의 상호 협력 등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여겨진다.

4) IBK 경제연구소, 해외혁신창업 생태계 연구 2018.2, 16p  
 5) <https://www.sedaily.com/NewsView/1VFDG5KACK> 서울경제. '커지는 스타트업 투자시장.엔젤투자 노크한 NH투자증권'  
 6) <http://www.bloter.net/archives/283591> . 블로터. 한 눈에 보는 '2017 스타트업 생태계'  
 7) <https://www.sedaily.com/NewsView/1VFAAF5R57> . 서울경제. 호반그룹,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사업 진출 . 20190212

#### 4.4. 기타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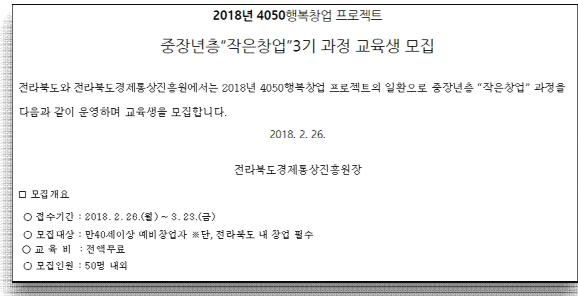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A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일부 시설에만 해당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본 기타제안에서 언급하였다. 먼저,, 1) 시설 통합, 목적전환 및 시설 확충을 해야 하는데 A시는 현재 너무나 많은 시설 (44개)을 관리하여, 지원의 집중성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져 일부 시설 통합, 목적전환 등의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2) 시설별 각각 차별화된 성격 지정이 필요하다. 특히 각 시설들이 다른 시설과 차별화되는 확실한 성격과 지원 영역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인데, 먼저 4050의 창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도 신규 법인 설립에서 40대 비중이 49.1%, 50대는 32.3%였으며 2018년도의 경우 40대가 34.6% 50대가 26.5%로 전체 창업중 4050의 창업비율은 과반을 한참 상회. 다만 4050의 창업희망자들 중 대부분이 자본금 5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창업인 경우가 많은 점<sup>8)</sup>을 고려하여 생계형 창업희망자의 경우 초기부터 타시설로 연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4> SKT 행복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SKT 인큐베이터 홈페이지

그러나 4050 시니어 창업희망자 중 개인이 가진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등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 교육과 정보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의 ‘행복창업지원센터’ 사례는 은퇴한 4050세대 중 ICT 관련 지식과 마케팅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희망자에게 도움이 된 대표적인 사례이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18년도 3월에 ‘4050 행복창업프로젝트’라는 창업지원을 3기째 운영

하는 등의 사례가 존재한다. 4050의 사회적 창업 수요 증가에 발 맞추어 A시도 또한 4050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창업 교육과 단계별 도약을 가속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림 5>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4050행복창업 프로젝트’

세번째로 기타제안에 들어갈 것으로는 3) 시설마다 필요한 특수 기능 개발이다. 이는 혁신형 창업기업의 폐업 프로세스 지원, 생계형 기업 업종전환 및 재창업 교육 등 필요하면서도 독특한 교육 기능들을 특정 시설들이 개발, 보유하여 차별성을 강화할 것을 기대하여 제안하였다. 기획재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신규창업자 99만명 중 84만명이 3년안에 폐업 신청을 한다고 밝혔으며<sup>9)</sup> 실제로 하루 평균 약 2500개의 법인이 사라진다는 점 등을<sup>10)</sup> 고려하여야 할 필요에 의해 폐업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폐업 희망자 중 재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자들이 폐업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금 조달 실패(26%), 영업 마케팅 실패(24%), 지식/경험/능력 부족(12%)<sup>11)</sup> 순으로 답하였는데 이에 대한 맞춤형 재창업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청년세대의 창업 후 폐업지원을 주안을 두고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 이유로 청년 창업의 경우 창업 후 3~4년안에 폐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은 점을<sup>12)</sup> 고려하였으며 무조건적인 재지원보다는 창업 실패에 대한 교육과 원인점등을 냉철하게 분석한 뒤에 지원해야 기존 창업 프로세스보다 발전된 상태로 재도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4)시설 명칭 통일을 하여 현재의 아이디어 실현공간은 서비스와 기능이 대동소이하나 그 명칭이 다양하여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성수 메

8)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3134241> . 한국경제. 4050 생계형 창업 증가...신설법인 10만개 돌파. 2019.1.31  
 9)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4250450621184> 한국일보, 스타트업 실패 3대 원인, 시장조사·투자유치·사업모델 선정 2016.04.25  
 10) [http://www.ksetup.com/bbs/board.php?bo\\_table=close&wr\\_id=10&sst=wr\\_hit&sod=desc&sop=and&page=1](http://www.ksetup.com/bbs/board.php?bo_table=close&wr_id=10&sst=wr_hit&sod=desc&sop=and&page=1) . K창업연구소. 최근 5년간 사업자 창업, 폐업 추이. 2018.06.30  
 11) [http://www.ksetup.com/bbs/board.php?bo\\_table=close&wr\\_id=12&sst=wr\\_hit&sod=desc&sop=and&page=1](http://www.ksetup.com/bbs/board.php?bo_table=close&wr_id=12&sst=wr_hit&sod=desc&sop=and&page=1) . K창업연구소. 사업정리(폐업)노트 . 2018.06.30.  
 12) <https://www.sedaily.com/NewsView/1S1YDL3JHE>, 서울경제. [벼랑 끝 청년 창업가]10곳 중 9곳 폐업...벼랑끝 청년창업. 2018.07.04

이커 스페이스와 같이 지역명에 기능을 더하는 형태로 하여 직관적으로 통일하여 개개의 시설이 지역별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하나의 시설로 파악이 쉽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 V. 결론

본 연구는 A시의 창업지원시설에 관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A시의 창업지원시설은 목적 위주로 시설을 개설을 하여 구조적으로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또한 창업지원시설을 관리하는 A시 산업진흥원 직원들의 전문성 문제, A시 창업지원시설 자체적으로 외부 투자연계등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A시 창업지원시설 전반에 대한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A시가 앞으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설립한 창업지원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A시에 한정된 사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설립하여 운영중인 다른 창업지원시설로도 그 관리개선 방안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례 연구에 의미가 있으며, 특히 A시 창업 준비자와 기창업자들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제안과 단계별 창업지원시설 분류를 통한 창업지원시설의 재구조화는 지역의 창업생태계에 국한된 제안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만한 사항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A시의 사례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분석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이기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이는 후속연구에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감사원(2017).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보고서  
 경제진흥본부(2018).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정책 현황 분석, 연구 보고서  
 김성훈·남정민(2016).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인식 연구 :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현황 및 인식 비교 분석. 벤처창업연구, 11(6), 175-183.  
 김용재·염수현(2014). 벤처 엑셀러레이터의 이해와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remium Report, 14-02.  
 김주성·홍다혜·권보람(2013). 엑셀러레이터의 국내·외 현황 및 운영사례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8(5), 164  
 김호경(2013). SKT ‘4050’창업후원에 아이디어 쏟아져, 동아일보, 기사, <http://news.donga.com/List/3/all/20131010/58134051/1>.  
 박진용·백주연(2018). 벼랑 끝 청년 창업가 10곳 중 9곳 폐업. 벼랑끝 청년창업, 서울경제.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1S1YDL3JHE>

배영임(2014). 엑셀러레이터의 성과와 핵심성공요인. 중소기업연구원,  
 서민우(2019). 호반그룹,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사업 진출, 서울경제,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1VFAAF5R57>  
 서울대학교 연구처. 창업지원기관 실태조사 결과  
 서울산업진흥원(2017). 창조경제와 융합의 시대를 이끄는 창조인문인력사업, <http://www.sba.seoul.kr/kr/sbbs01s1>,  
 양현봉(2019).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창업벤처기업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엄희선(2018). IBK창공, 혁신창업기업에 날개 달아줄 것, 대한금융신문, 기사<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84>. 인터뷰 기사.  
 이길우·엄장환·김태현(2014). 미국의 창업지원 정책사례분석과 시사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보고서.  
 이우상(2019). 4050 생계형 창업 증가...신설법인 10만개 돌파, 한국경제, 기사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3134241> . 한국경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 해외주요국 중소벤처기업 정책분석  
 조민석김선우(2017). 미국 창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2017). 한국형 엑셀러레이터 제도 순항 중, 20170818, 정책브리핑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 창업지원사업, <http://www.k-startup.go.kr/common/post/detail.do?postSn=86744&mid=30007&bid=709>  
 창업진흥원. ‘대학 기업가센터 성과지표 개발연구  
 채반석(2017). 한 눈에 보는 ‘2017 스타트업 생태계, 블로터, <http://www.bloter.net/archives/283591>  
 허정현(2016). 스타트업 실패 3대 원인, 시장조사·투자유치·사업모델 선정, 한국일보, 기사,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4250450621184>  
 Energy & Industrial Strategy, Business Incubators and Accelerators: The national picture  
 Jonathan Bone, Olivia Allen and Christopher Haley, Department for Business,  
 K창업연구소(2018). 최근 5년간 사업자 창업, 폐업 추이 [http://www.ksetup.com/bbs/board.php?bo\\_table=close&wr\\_id=10&sst=wr\\_hit&sod=desc&sop=and&page=1](http://www.ksetup.com/bbs/board.php?bo_table=close&wr_id=10&sst=wr_hit&sod=desc&sop=and&page=1)  
 K 창업 연구소 ( 2 0 1 8 ) . 사업 정리 ( 폐업 ) 노트 [http://www.ksetup.com/bbs/board.php?bo\\_table=close&wr\\_id=12&sst=wr\\_hit&sod=desc&sop=and&page=1](http://www.ksetup.com/bbs/board.php?bo_table=close&wr_id=12&sst=wr_hit&sod=desc&sop=and&page=1)  
 Kim, J. S., Hong, D. H, An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Process of Accelerators,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28(5)  
 Kim, S. H.(2016). Republic of Korea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atus and Recognition Research: Focusing on Entrepreneurs, Entrepreneurs Preliminary, Student Centere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and Recogni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6). 175-183  
 IBK경제연구소(2018). 해외혁신창업 생태계연구. 연구보고서